

다차원에서 작용하는 파동기기

김홍길 저

인체를 단순한 물질육체로 분류하지 않고 다차원의 에너지체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파동'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파동은 물질과 정신을 넘나들며 다양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인체를 다차원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며 특히, 파동기기를 통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파동의학은 영어로 Vibrational Medicine이라 한다. 파동이란 음파의 모형 또는 어떤 진동을 가진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파형을 빛의 발진 또는 진동의 형태를 가진 에너지라고 한다. 이러한 에너지를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해 무선주파수, 텔레비전 방송, 엑스선, 우주선, 초음파, 마이크로파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

파동의학이란 이런 주파수가 다차원 인체에너지 시스템 계통에 인체의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최근의 파동의학에는 퀴텀(Quantum) 의학이 포함된다. 퀴텀의학은 20세기 초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물리공식 $E=mc^2$ 에 의해 설명되

어질 수 있다. 즉 물질의 에너지는 그 물질의 질량과 광속의 제곱의 곱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E=mc^2$ 의 물리식을 암기는 하지만 잘 이해하는 못하는 것 같다. 먼저 물질이 에너지로 교환될 수 있는 것과 물질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교환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물질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공식인 $E=mc^2$ 의 이론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이 원자폭탄이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론을 바탕으로 변환될 수 있는 에너지와 변환되지 못하는 동결된 에너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환될 수 있는 적은 양의 물질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연구하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쿼텀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쿼텀의학의 쿼텀(Quantum)이란 용어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차원의 최소에너지 단위의 집합이 보이는 에너지 형태를 의미한다.

에너지계에서 본 인간의 신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원자와 기타 구성입자이다. 인간의 신체도 물질이며 따라서 원자와 기타 구성입자로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결합입자로 인하여 다양한 진동에너지의 모습을 갖는다. 파동의학은 다양한 진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와 진단에 접근하는 의학이다. 현대의학도 이러한 주파수를 이미 활용해 오고 있다. 즉 EKG(심전도: Electrocardiograms)라고 해서 환자가 병원에 가면 심전도를 측정하여 심장의 질병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심장박동과 심장의 혈액흐름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그래프를 통하여 표현해 내는 진단도구로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방식이다. 즉 심장의 전기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동의학의 진단도구였던 것이다.

그러나 EKG는 인체의 다양한 에너지 계통 중 일부만을 단순 해석해왔다. 과거의 관점에서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뿜어내는 펌프역할, 신장은 혈액의 필터

역할을 하고, 근육과 골격은 기계적 연결고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신 파동의학은 인체가 단순히 일차원적 시스템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의 에너지에 의해 활동한다고 본다.

파동의학의 모델

인간건강의 새로운 모델은 신체를 기계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체기계론(Biomechanism)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즉 심장은 피를 뽑아내는 펌프역할 뿐만 아니라 다차원 환경을 인식하는 마음의 역할, 에너지 산소 공급자 역할, 인체의 각 부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 등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심장은 혈액의 필터역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의해 만들어진 독성폐기물의 배출을 도우며 근육과 골격은 공간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형태를 구성한다고 본다. 그리고 파동의학 모델의 관점에서 인체의 장부는 직관적 지성과 다양한 정보를 수용, 전달하는데 장부가 받아들인 대부분의 정보는 매일 필요한 신체의 환경 안에서 각각의 장부기능을 조절하는 화학적 에너지의 정보전달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각각의 장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과 세포는 비화학적 형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정보를 교환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세포는 약한 빛 펄스신호를 방출하는데, 이것은 각 장부 안에서 세포의 활동을 조절한다. 세포가 방출하는 빛 펄스신호는 매순간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의 코드화 집합이다. 인체세포는 호르몬과 생화학적으로 전달된 코드정보, 신경에 의해 전달되는 전기적 신호 및 약한 빛 펄스신호를 통해서 의사소통 한다. 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호화된 다양한 형태의 것을 이용하며 세포는 개별적이고 선천적인 지적 능력에 의해 활동한다. 신체내의 다양한 비화학적 에너지 전달은 신체의 정상적 기능과 건강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호화된 신호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에너지 신호는 신체의 장부를 활성화시키는 동기 신호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점화 플러그의 점화 활동과 인체내의 신호 사이에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자동차보다 엄청난 복잡성

을 가지고 있다. 심장은 인체혈액을 펌프질하는 살아있는 엔진이다. 사실상 우리의 선인들은 심장에 영혼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말하여 왔다. 인간의 영혼은 심장 안에 자리잡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은 영혼의 재발견을 이끌어 주는 통로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심장세포는 끊임없는 전기 자극으로부터 힘을 얻어 자동차의 엔진이상으로 죽을 때까지 생명력과 영혼 에너지를 가동시킨다. 우리의 물리적 신체와 뇌는 서로 각각 정보전달을 하며 의미 있는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현실 속에 물리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해낸다. 영혼은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동안 물리적 신체 안에 거주할 수 있지만 물리적 차원만이 영혼이 거주하는 절대적인 영역은 아니다. 파동학적으로 이것은 다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물리적 세계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는 또다른 자연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밤에 잠을 잘 때 우리의 마음은 꿈 상태로 들어가며 한 차원 높은 상태에서 몸을 이탈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파동 의학의 관찰에 의하면 영혼의 영역은 인간 존재를 다차원적으로 인식할 때 진정한 건강과 질병의 뒤에 숨어있는 진실이다.

인간 에너지 시스템

다차원에너지 시스템인 인간에 있어 파동은 영양 정보전달 계통과 일반적인 건강유지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체에너지로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먹은 음식물로부터 만들어진 대사에너지이다. 우리는 음식물 분해를 통해 당,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고 위와 장을 통해 흡수한 것을 세포 대사에너지의 화학적 형태로 전환한다. 어떤 음식은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다른것은 몸의 퇴화를 막는데 사용하거나 활동과 창작에너지로 사용된다. 이 화학적 에너지는 세포의 일차 연료역할을 하며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우리 몸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기적인 의사전달이 신경계통을 통하여 일어난다. 우리가 물체를 만지려고 손을 움직이길 원할 때 뇌에서 신경계통의 전기적 펄스신호가 근육과 팔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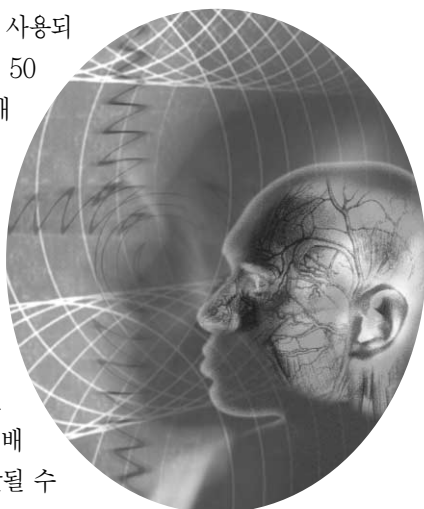
의 신경계통은 뇌에서 장기까지 무선신호를 연결한 것과 같으며 전기적 결선시스템이다. 뇌는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부터 여러가지 정보 형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부호화 된 전기신호를 사용한다. 신경계통이 빠른 전달을 하면 할수록 뇌의 신호 해석 강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뜨거운 난로 위에 놓인 달구어진 냄비 쪽으로 갈 때 미지근한 냄비에 접근할 때 보다 뇌는 더 많은 신호를 송수신해야 한다. 사람의 온도 감지센서가 빠르게 신경을 일깨워 뇌에 전달했다면 뇌는 냄비가 만지기에 너무 뜨겁다는 정보를 해석하여 이 뜨거운 냄비로부터 손을 후퇴시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최근 인간의 전기적 기능연구에서 인간은 복잡한 전기신호 컨트롤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이런 전기신호는 신경계통과 경락계통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교환한다고 한다. 최첨단 과학자는 살아있는 세포의 내부와 세포막에 컴퓨터와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매우 작은 집적회로의 기능이 있다고 하며, 어떤 과학자는 세포간의 정보교환이 전자제어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신체의 세포는 화학에너지 뿐만 아니라 전자적 신호 집합체인 빛 신호로도 세포상호간에 대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포상호간의 정보 교환분야를 생체전자학(Bioelectronics)이라 하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 생물학적인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해석한 것이다. 생체전자학에서 암은 정상적인 전자신호를 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 질병이며, 제한되어야 할 성장이 과대 성장 신호로 교체되어 분열과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이 맞다면 아마도 암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의 한 방법으로 생체내의 전자 대화 신호를 처리하는 세포단위 제어에 의해 암세포의 분열을 막고 성장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파동에너지 처리방법이며 현대의학의 수술, 방사선, 화학요법과는 다른 혁신적 방법이다. 바꾸어 말하면 생체전자 세포조절 시스템은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단순히 전자기적 방법과 파동처리 방법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에는 화학, 전기적 교환과 제어뿐만 아니라 빛 정보의 교환이 있다. 인체세포는 미약한 자외선 빛을 발산한다고 하였다. 세포에 의해 발산되는 미약한

자외선 빛 신호는 생체세포간 정보교환에 사용되
는 빛 정보제어시스템의 일부분이다. 약 50
년 전 러시아의 과학자는 수정 배양기 2개
를 나란히 놓고 한곳의 세포에 독을 주입
하자 독을 주입하지 않은 다른 수정 배
양기에 있는 세포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이것은 그 수정 배양기 안에 있는
세포가 가까이 있는 또 다른 배양기 세
포에게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세포신
호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유리 배
양기로 대체되었다면 죽음의 정보는 전달될 수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자외선 신호를 차단



하지만 수정은 자외선을 쉽게 통과시킨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신호는 세포의
자외선 빛 정보 방사에 의해서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
한 과학자가 세포에서 발생하는 빛을 관찰할 수 있는 고감도 빛 측정 장비를 사
용하여 생체 세포에서 자외선 빛이 발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의 에너지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전자기, 전기, 화학에너지 시스템의 영
역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보다 진보된 과학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다. 전통의학
신봉자는 최소한 이런 에너지 시스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체
에 사용되는 특정한 에너지 시스템은 기존 의학에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
분이 있다. 여러가지 에너지 치료시스템들은 대부분 현대 물리학자에 의해서 공
식적으로 인정받는데도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과학적 인식이 부족한편이
다. 또 다른 에너지 시스템은 다차원으로 구성된 인간의 중요한 생명 에너지와
영혼 에너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에너지의학은 때때로
미약 에너지 시스템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아시아와 인도에서 신비
한 에너지 의학으로 계승되어 왔다.

파동의학 장비의 어제와 오늘

최근 세계적으로 대체의학 분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중 사용되는 파동 기기의 초기모델은 프랑스에서 수맥을 찾는 방법에 사용된 라디에스테지(Radiesthesie)라고 불렀던 도구이며 영국과 미국에서는 다우징이라 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이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건강을 진단하는 데까지 활용하였다. 그 기본적 개념은 세상의 모든 사물은 고유의 파동을 방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과 도구를 1920년경 미국의 의사인 알버트 아브라함 박사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스승인 쏘어 교수로부터 질병 파동방사 특성의 개념을 배워 사람은 각 장기별로 고유의 파동이 방사될 뿐 아니라 질병의 유발인자인 세균 또한 고유한 파동을 방사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다. 아브라함 박사가 개발한 장치는 ERA(Electro Reaction of Abrams), 또는 Radionics(Radiation + Electronics)라고 하여 여러 사람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파동관련 의학이 동양에서는 이미 5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는데 사람의 질병을 맥을 통하여 진단한 것이 그 최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현대의 컴퓨터 역사와 비교하여 보면 제 1세대는 진공관시대(1950년대 후반 이전)라 말할 수 있다. 이 진공관시대의 연산속도는 밀리초(ms)단위이다.

컴퓨터의 제2세대인 트랜지스터시대(1950 1960년대)에서의 연산속도는 마이크로 초(μs : 100만분의 1초) 단위이며 이 시대 파동의학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 독일의 메리디안 기기의 출현이다. 이 기기는 1955년경 닥터 볼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다양한 모델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다. 닥터 볼의 업적은 이 기기를 통해 동양의학의 경혈을 세계최초로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동양의학의 경혈도에 표시된 대로 이 기기를 접촉하여 피부저항이 제일 적은 곳에 경혈점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경혈점에 침을 놓을 수가 있다.

컴퓨터의 3세대(1960년대 중반 1970년대 후반)는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조합하여 집적회로(IC)를 구현하였으며 연산속도는 나노초(ns: 10억분의 1초)

단위였다. 파동의학에서는 독일의 닥터 쉘멜이 VEGA기기를 개발하였다. 메리디안 기기가 저항만을 측정값으로 하였으나 이 기기는 저항과 전압을 측정값으로 사용하는 한 단계 세밀한 기기이며 현재까지 일반 양·한방의원에서 사용된다.

컴퓨터의 제4세대(1970년대 후반 현재)에서는 고밀도 집적회로(LSI)에서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중이며 연산속도는 피코초(PS: 1조분의 1초) 단위이다. 파동의학 또한 컴퓨터의 연산속도와 관련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1982년경 미국의 닥터 넬슨이 트라이벡터(Trivector)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트라이벡터이론은 측정값으로 전기의 수동 소자인 저항(R), 콘덴서(C), 코일(L)의 값에 위치값을 결정하는 벡터(Vector)를 적용하여 인체 각 부분에서 방사하는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퀴텀기 기라 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1989년 미국의 닥터 웨인스톡이 MRA-1 Original을 발표하였다. 이 기기는 라디오닉스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여 생체파동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많은 파동자료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는 기기이다. 그 밖에도 수많은 파동기기 및 제조회사들이 있으나 각각의 파동기기를 고찰할 때는 기초측정값이 저항, 콘덴서, 코일, 벡터값 등 어떤 측정값을 쓰느냐에 따라 기기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기기의 물리적 성질을 잘 이용하였을 때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파동 의학의 미래는 지금까지 기기의 발달 역사와 컴퓨터의 연산속도를 비교하여 예측할 수가 있다. 컴퓨터 연산속도 즉, 계산능력의 향상이 파동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다차원 에너지 구조에서 세포 상호간에 교류하고 있는 총 정보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즉 인간의 세포는 수십 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인체 세포 조직에서 동시에 모든 조직과 기관이 움직이기 위해 전달되는 정보량은 슈퍼컴퓨터 몇 대를 동원하여 읽어야 할 정보량인지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

최신 의학기기인 MRI(자기공명 영상 진단기)는 십억원 이상 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인체에 강한 자장을 걸어주어 조직내의 원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고주파를 가하면 여기(勵起)되는 공명현상을 일으킨다. 이

때 고주파를 중단하면 원자핵은 저마다 독특한 신호를 내면서 원래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신호를 포착, 컴퓨터로 분석해 영상으로 재구성 하는 것이다. 특히, 인체의 물 중에서 수소가 발생시키는 RF무선주파수 즉 복합주파수를 해석하여 컴퓨터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비이지만 아직 다차원으로 교류하는 인간 신체의 정보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의 정보를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수렵시대에서 농경시대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의 주파수 사용에 이해가 미진하며 이용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주파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앞으로 반도체 칩, 기억소자의 발전 즉 컴퓨터의 연산속도에 의해 미래의 파동의학은 급속히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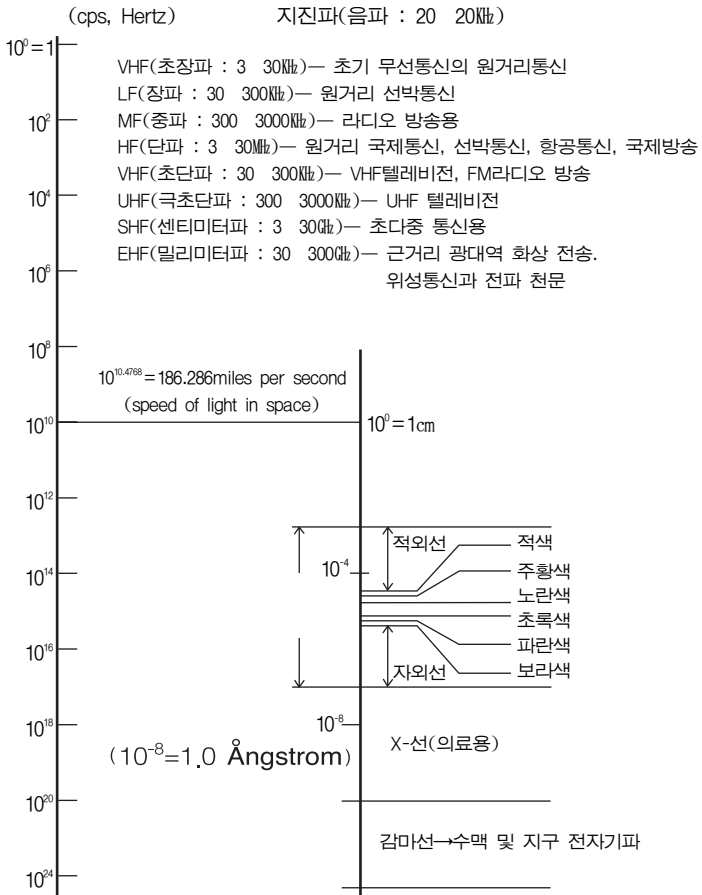
지금의 인터넷 시대는 국제화 시대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이다. 세계가 국경 없이 한 울타리가 되어 있고 현대의학의 모습 또한 DNA의 해석에 의해 발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DNA의 해석은 인체의 요소 중 단백질의 구조를 해석함으로 이것은 즉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파동분석은 영혼, 신체, 정신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을 비롯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다차원으로 해석한다.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의 생활환경을 다음 도표로 이해해보자.


주파수의 특성

주파수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지진파에서부터 빛의 범위까지 다 포함된다. 그중에서 원적외선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발표되어 실생활에서 많이 응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원적외선보다 낮은 주파수인 마이크로웨이브(극초단파) 파장대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자외선 이상의 높은 주파수대에 피부를 노출시키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더 높은 주파수대인 X-Ray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병원 방사선과에서 엑스선 촬영을 할 때를 생각해보자. 촬영기사는 무거운 납(Pb)으



로 된 갑옷을 입고 방탄용으로 된 철판 뒤에서 촬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의사들이 엑스선을 많이 쬐는 것은 몸에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롭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방사능 오염 즉, 전자기파 오염을 말한다. 그리고 좀더 높은 주파수대인 감마파대를 관찰하면 실생활에서 수맥이나 지자기파(地磁氣波)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엑스선 보다 더 해롭지만 무심코 지나가며 일부 수맥이나 지구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 피해가 인식되고 있다. 감마파가 덜 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피해 에너지의 양이 매우 적으며 일정량 이상으로 쌓였을 때에만 피해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 일정한 지역에 암 발생율이 높았을 때를 관찰하여 보면 그 지역에 수맥과 지자기맥이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수맥이나 지자기 맥은 개와 고양이의 잠자리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개는 수맥과 지자기맥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잠자리를 피하지만 고양이는 수맥과 지자기맥이 교차하는 곳에서 숙면을 하는 성질을 갖고있다. 또 이런 징후는 벽에 금이 간다든지, 이끼가 낀다든지 또는 나무가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지 못하고 줄기가 한쪽으로 이상성장을 하였을 때 감마파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우주선(宇宙線) 파장대의 영향으로는 하늘의 오존층 파괴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수파수 이용을 염두하고 생활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필자 : 김홍길

미국 유인대(Yuin University in California) 객원 교수, 파동학 강의, 퀀텀 인스티튜트 대표.

보키니

빌리 밀스 & 니콜라스 스파크스 저 / 박윤정 역

/ 나무심는 사람 / 7,500



〈보키니〉는 인디언 라코타족 말로 ‘새로운 삶,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이란 뜻이다. 이 책은 인디언 출신의 저자 빌리 밀스가 어린 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자전적인 요소가 담긴 이야기다. 명상과 꿈에 대한 인디언들의 믿음과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그들의 철학을 ‘한 인디언 소년의 깨달음의 여행’이라는 설정을 통해 재미있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